

## SK케미칼, 보스톤 마라톤으로 자선행사

SK케미칼이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자사 직원을 통해 불우이웃 기금을 적립하는 행사를 벌인다. SK케미칼은 4월17일 열리는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사내 전산 관리담당 이병선 과장이 1m를 달릴 때마다 사내 후원자들이 1원씩을 적립한다고 발표했다.



김창근 부회장(가운데 유니폼 좌측)과 이병선 과장(우측)

는 마라토너의 꿈으로 자리잡고 있다.

SK케미칼은 이병선 과장이 완주하면 적립금이 약 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애우 봉사기관인 파주 주보라의 집에 전액 기탁할 계획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후원행사는 SK케미칼과 SK C&C가 함께 SK의 이름을 걸고 미국 보스톤에서 행복날개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과의 싸움에 나서는 이병선 과장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4/11>

국내 마라톤 대회 6차례 완주기록을 갖고 이병선 과장은 개인기록 3시간 7분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0대에서 보스톤 마라톤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병선 과장은 지난 6년간 헬스동호회와 마라톤동호회를 통해 꾸준히 달리기를 연마해 왔다.

베를린,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톤 마라톤 대회는 한국의 대한육상경기연맹을 포함한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인정하는 공식 제한 기록을 갖추어야 출전자격이 주어지며 대회의 참가 및 완주는 세계 모